학술특집 번역물로 보는 해외 사회과학 우수저작

# "포이에르바하의 철학적 선언"

이글은 원저 Louis Althusser 「For Marx」(불어판 1965)의 영역본(1977 NLB영국)중에서 제1장 〈Feuerbach's 'Philosophical Manifestoes'〉을 번역한 것이다. 알튀세르하면 흔히 우리에게 '구조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마르크시즘의 '알튀세르적 단계'라 할 정도로 마르크시즘 연구의 대가였으며, 정통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그가 마르크시즘의 탄생적 배경이었던 독일 고전철학의 대가인 헤겔 및 포이에르바하와 마르크스저작을 비교연구하면서 마르크스 초기 저작속에서 나타나는 포이에르바하적 요소를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성숙된 마르크스저작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이글 또한 알튀세르의 이러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쓰여진 글이다. 잘못된 번역은 전적으로 역자의 책임이다. 〈편집자 註〉

원저자: 루이스 알튀세르 (Louis Althusser)
번 역: 강준원 〈사학·2〉

## 종교·신학의 비판을 토대로 이성과 자유 강조

## '인간성' 부활의지, 관념적 청년맑스 이론의 기초

La Nouvelle Critique은 Collection Epimethee(P. U. F)에서 몇달전에 간행된 포이에르바하 선집에 관해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나는 많은 문제에 간결한 답변을 함으로 해서 규정할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한다.

철학적 선언이라는 표제하에 1839-1845사이 포이에르바하의 저작중 가장 탁월한 텍스트와 논문들을 모았다. "헤겔 철학 비판(1839)", "기독교의 본질(1841)" 서문, "철학 개혁을 위한 예비명제(1842)", "미래철학의 근본원칙(1843)" "기독교의 본질(1843)" 2판서문, "슈티르너의 공격에 반박한 논문(1845)"

간행된 포이에르바하 선집은 1839-1845사이 포이에르바하의 모든 저작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이들 역사적 기간동안에 그의 사상의 본질적 제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Philosophical Manifestoes)

### I. 표제가 왜 '철학적 선언'인가

이 표현은 포이에르바하 자신의 것은 아니다. 나는 그것을 두가지-하나는 주관적인,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근거로 감히 말해보았다.

철학 개혁에 관한 텍스트와 근본원칙의 서문을 읽는 누구나가, 그것들이 참선언-인간을 속박으로 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이론적 폭로의 격렬한 예고-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것이다. 포이에르바하는 인간성(Humanity)에 호소한다. 그는 보편적 역사로부터 베일을 벗겨내어 신화와 거짓 신념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인간의 진리를 파헤쳐 인간에게 부활시킨다. 정해진 때가 왔다. 인간성은 그 자체의 소유물에 임박한 혁명성을 내포한다. 개인들은 마침내 이것을 자각하게 되고 진리안에 있는 것을 실재(reality)화하게 할 것이다. (즉, 자유롭고 평등한 우애의 존재)

이러한 내용은 포이에르바하에 있어서는 명백한 선언이다.

그것은 독자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1840년대의 급진적 청년 인텔리계급에 있어서 '독일인의 고통(German misery)'의 모순과 신헤겔철학을 통해서로 논쟁하는 중이었다. 왜 1840년대인가? 그것은 1840년대가 이 철학을 검증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1840년에 청년 헤겔학파는 역사-이성과 자유의 영역-에 목적지가 있다고 여겼으며 그들의 신념-프로이센의 전제적·봉건적 지배의 종결, 검열의 폐지, 교회의 근거의 축소 다시말해서 정치·사상·종교의 자유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실현에 관해 왕위의 계승자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소위 '자유주의(liberal)'의 계승자-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즉위하자 마자 곧바로 전제정치로 복귀했다. 전제정치의 확립과 재확인은 청년 헤겔학파의 모든 신념의 토대이자 총화였던 이론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 원칙적으로 역사는 이성과 자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단지 비이성과 예속뿐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게 되도록 가르침(바로 이러한 모순)을 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파악될 수 있었는가? 이점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발행되었고 다음에 철학개혁에 관한 팜플렛이 나왔다. 이들 텍스트가 해방된 인간성을 못 담아냈을지는 모르나 청년 헤겔학파를 이론적인 궁지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정확히 청년 헤겔학파의 가장 큰 혼란의 시기에 포이에르바하는 그들이 인간과 역사에 대하여 서로 제기해 왔던 극적인 문제에 명확한 답변을 주었다. 이러한 탁월함과 열성의 재현은 40년이 지나 엥겔스에게서 볼 수가 있게된다. 포이에르바하는 헤겔과 모든 사변철학을 백지상태로 만든, 거꾸로 서있던 헤겔철학을 뒤집어 정립시켜 놓은, 모든 소외와 모든 망상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성을 부여한, 이성자체의 이름으로 역사의 불합리를 사고하고 비판한, 마침내는 관념과 실재를 일치시킨, 세계 모순의 필연성과 자유의 필연성을 내포한 명배하게 '새로운 철학(New Philosophy)'이었다. 이것이 노년의 엥겔스가 인정했던 것처럼 신헤겔학파 '모두가 즉시 포이에르바하학파'로 돌아선 이유이다. 또한 청년 헤겔학파가 포이에르바하의 저작을 미래의 길로 안내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였던 이유이다. 나는 이들 선언이 철학적이다라는 것을 첨가하고자 한다. 명약관화하게 모든 것은 여전히 철학에서 파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적 사건들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들이 되어왔다.

### II. 이들 저작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1840년대의 이들 저작이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오래 지속되고(정말로 이들 저작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오늘날 다소의 실존주의자와 신학자들은 현대 조류의 원천에 관해 이들 저작을 살펴본다)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 저작이 주로 역사적 계기의 부산물이며 역사적 역할(물론 제한된 범위이지만 위대한 미래를 제시하는)을 담고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포이에르바하는 청년 헤겔운동의 이론적 발전의 위기에 증인이며 행위자였다. 1840-1845사이 청년 헤겔학파의 저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이에르바하를 읽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러한 것은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의 범위가 포이에르바하의 사상을 다분히 함유하고 있음을 밝혀 줄 것이다. 마르크스의 용어는 1842-1845의 포이에르바하의 용어(소외, 유적존재, 총체, 주어와 술어의 '전도'등)에서 유래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더 중요한 것으로 그것은 철학의 근본 문제설정(Problematic)이다. 「유대인 문제」 또는 「헤겔 법철학 비판」 같은 논문들은 포이에르바하 문제설정의 외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연적으로 마르크스의 주제는 포이에르바하가 직면한 급선무와 동떨어지게 되며, 하지만 이론적 개요와 문제설정은 동일했다. 마르크스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스크스는 실제로 1845년까지 이러한 문제설정을 '청산하지' 못했다. 「독일 이데올로기」는 포이에르바하의 철학과 영향으로부터 양심적이고 확연한 결별을 드러내는 첫 저작이다. 포이에르바하 저작과 마르크스 초기 저작의 비교연구는 마르크스 저작의 역사적 해독과 마르크스의 발전경로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 III. 이러한 역사적 이해는 어떠한 이론적인 의의를 가지는가

틀림없이, 우리는 과거 1839-1845사이의 포이에르바하의 저작들속에서 마르크스의 '윤리적인(ethical)'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된 대다수 제개념들의 도출이 어떠한 오류도 낳을 수 없다 것으로 파악해 왔다.

'철학의 세계와 존재', '주어와 술어의 전도', '인간에 관한 근원은 인간 자신이다', '정치적 국가는 인간의 유적존재이다', '철학의 억압과 실현', '철학은 인간해방의 머리이며 프롤레타리아트는 철학의 심장이다' 등과 같이 잘 알려진 표현들은 포이에르바하로부터 직접 빌어오거나 영감을 받은 것들이다.

마르크스의 관념주의적 '휴머니즘(Humanism)'의 모든 표현은 프로에르바하의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인했듯이 포이에르바하-이들 선언이 보여주듯이 항상 정치분야에 대해 사고는 하고 있었으나 거의 언급한 적이 없다-를 단지 인용하거나 반복하지는 않았다. 포이에르바하의 모든 관심사는 종교와 신학을 비판하는데 있었으며 더불어 사변철학으로 통하는 신학에 관한 세속적 가면에 있었다.

이에 반해서 청년 마르크스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분야(소외된 개인들의 구체적 삶)-정치가 단지 '신'만을 위한 정치- 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 문제', '헤겔 법철학비판' 등에서, '신성가족'에서는 더더욱이나 청년 마르크스는 다만 인류역사의 이해에 윤리적 문제설정을 적용한 포이에르바하의 전위(avant-grade)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이 시기-소외 이론을 정치경제학 원고에 전개하기 전-에 소외이론(포이에르바하의 '인간본성'이론)을 정치분야와 인간의 구체적 활동에 단지 적용만 했다라고 볼 수 있다. 포이에르바하의 이들 개념의 실재적 기원을 속성(마르크스의 속성은 이러하다. 포이에르바하의 속성은 저러하다. 등)의 기준에 따라 모든것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단지 빌어온 제개념의 고안과 문제설정을 마르크스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식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빌어온 이들 개념을 하나씩 고립하여 빌어온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집합(set)(이 집합은 명백히 포이에르바하의 문제설정이다) 이것이 본질적인 주안점이다. 그 이유는 고립하여 개념을 빌어오는 것은 단지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의미가 되기때문이다. (개념의 배경으로 부터) 개념을 고립하여 빌어오는 것은 이러한 개념(예를들면, 「자본론」에서 스미스, 리카르도, 헤겔로부터의 차용)을 빌어온 것으로부터의 배경에 관하여 차용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서로 연관된 제개념의 집합을 빌어오거나 실재적 문제설정을 빌어 오는 것은 부수적일 수 없으며 차용인을 구속한다.

나는 선언과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의 비교가 2,3년동안에 실제로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하의 문제설정을 받아들이고 그 자신이 깊이 관여했음을 또한 이시기 동안에 대부분의 마르크스의 제언급-이후의 연구자료(예를들면, 정치, 사회적 삶, 프롤레타리아트, 혁명등)에 영향을 미친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리라 확신한다.

따라서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검증의 완전한 핵심에 자신을 두는것과 모든 이론적 결론과 추론을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는 이러한 필요(선언과 마르크스 초기저작의 비교)가 아주 중대한 것이라 여기는데 그이유는 마르크스가 모든 문제설정을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포이에르바하와의 결별-잘 알려진 '우리의 지난날의 철학적 양심을 청산한다'-이 비록 많은 특정한 구개념을 완전한 것으로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의미를 구개념에 부여할 완전해진 새로운 문제설정의 채택을 뜻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마르크스 자신이 사용한 그리이스 역사의 한 단편-페르시아에 대항한 전쟁에서 심각한 패배후에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인들에게 땅을 버리고 다른 요소(해상)에 도시의 미래를 세울 것을 충고했다-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한다. 마르크스의 이론적 혁명은 정확히 구요소-헤겔과 포이에르바하 철학의 요소로부터 해방된 후에 새로운 요소에 그의 이론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문제설정은 두가지 경로를 통해 조명될 수 있다. 첫째로 마르크스의 성숙한 저작에서-「독일 이데올로기」, 「철학의 빈곤」, 「자본론」등.

그러나 이들 저작은 「정신현상학」, 「엔찌클로페디」, 「대논리학」에서의 헤겔의 철학의 제시 또는 「미래철학의 근본원칙」에서의 포이에르바하의 철학의 제시에 필적할 만한 마르크스의 이론적인 입장의 어떤 체계적인 제시도 담고 있지 않다.

마르크스의 저작은 논박문(「독일 이데올로기」, 「철학의 빈곤」) 이거나 아니면 명백한 연구논문(「자본론」)이다. 마르크스의 이론적 입장이 소위 모호하게도 그의 철학은 확실히 이들 저작에서 생생하지만 이들저작안에 묻혀있고 그의 비판적이며 탐구방식의 관심사와 혼동되며, 예외적으로 설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자체의 목적을 위해 명백한 논의를 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아주 드물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입장은 해석자의 일을 단순화하지는 않는다.

이점에서 포이에르바하의 문제설정과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하와 결별한 이유의 인식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포이에르바하를 통해 마르크스의 새로운 문제설정에 간접적 접근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 마르크스가 결별 하였던 문제 설정이었는가를 풀수 있으며 결별에 의해 '벌어진' 이론적 수평선을 발견할 수 있다. 마르크스가 집착한것만큼 또한 폐기한 포이에르바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르크스같은 몹시 까다로운 사상가는 이후의 제논리만큼이나 포이에르바하와의 결별이 조명되어야 한다. 마르크스가 명확한 이론적 입장체계로 종지부를 찍은 포이에르바하와의 결별에 따라, 포이에르바하의 대략적 인식은 마르크스의 철학적인 입장-이론적인 함의가 풍부한-의 접근에 둘도 없는 수단이 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새로운 문제설정이 마르크스와 헤겔사이의 관계의 더나은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리라 여긴다.

마르크스와 포이에르바하사이의 이러한 결별이 있었다면 마르크스의 초기저작의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헤겔비판이, 최소한의 근본적인 철학적 전제조건-포이에르바하의 관점(마르크스가 이후에 폐기한 관점)으로 비판했던 범위-에 관한한 부적당한것으로 심지어 그르다라고 간주됨에 틀림없을 것이다.

현재 보통은 편의의 이유로 비록 마르크스가 이후에 관점을 수정했다 할지라도 초기저작에서 발견되는 헤겔비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할수 있고, 때문에 '보유될수'있다라고 여기는 불변적이고 악의없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헤겔에 관한 포이에르바하의 비판이 헤겔 철학 자체내부에서의'비판이었다는 것을 자각했을때 포이에프바하와 결별했다는, 포이에르바하가 여전히 철학자-헥레철학체계의 몸을 바로 잡았으며 하지만 근본적인 골격과 토대(이론적인 전제조건)를 보유해온-였다는 초보적 사실을 소홀히 다루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포이에르바하는 헤겔 영역내부에 정체되어왔으며, 헤겔에 맞서 근본원칙을 단지 변형해 온 이래로 헤겔의 비판자만이 아니라 헤겔의 포로까지 되었다. 포이에르바하는 '제요소'를 변형하지는 않았었다. 헤겔에 관한 참다운 마르크스 비판은 정확히 제요소의 변형-고집센 포이에르바하가 보유한 철학적 문제설정의 풍부함-에 의존한다.

어떤 의미로는 마르크스와 포이에르바하의 사상사이에 특권화된 대질의 이론적인 흥미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논쟁가와 관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나는 무엇이 두번-첫번째 헤겔과 다음에 포이에르바하와-의 결별에 문제가 되었는가를, 무엇이 철학이라는 단어의 완전한 의미인가를 말하고자 했다.

마르크스의 '철학'이 고전적 철학모델과 대조를 이룰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전통적 철학문제 설정의 최후의 이론가였던 헤겔과 결별하게 되었던 그리고 포이에르바하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했으나 허사가 되버린 그의 이론적 입장은 무엇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한 답변은 포이에르바하-마르크스의 초기 '철학적 양심'의 최후의 증인이며 마르크스가 참다운 미래를 세우기 위해 빌어온 이미지를 폐기하기 전에 자신을 계획했던 최후의 귀감-로부터 대개는 미흡하게 답해질 수 있을 것이다.

포이에르바하와 마르크스의 결별은 외형적일 뿐 마르크스의 초기 저 작물을 근거로 한다면 마르크스는 여전히 포이에르바하를 계승하고 있다

〈 포이에르바하 〉

〈 마르크스 〉

PALCOM

컴퓨터?

경희전자로 오십시오

PALCOM시리즈는 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립니다.

취급품목

- IBM PC XT/ AT/ 386
- PRINTER &주변기기
- S/W 개발

특별판매

- MOUSE(사용자정의용)
- MUSIC CARD

경희전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51-30
용산컴퓨터 도매상가 6동 117호
TEL. 703-1427·717-6611(2117)

※ S/w 개발실: 22동 11호 다래시스템
TEL. 703-9275

## 1991학년도 1학기 교비 해외 연구파견 교원선발

국제교류위원회에서는 교원 교비해외연구파견 규정에 의거 본교 교원의 해외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학년도 1학기 교비 해외 연구파견 교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본교에 3년이상 재직중인 전임교원 단, 국내외 학술지원금에 의해 장기 (3개월이상) 해외연구활동을 하고 귀국한 자는 만3년이 경과 되어야 함.
2. 선발인원: 3명
3. 파견기간: 1991년 3월1일 1991년8월31일 (최소 3개월이상 파견되어야 함)
4. 제출서류: 국제교류위원회 소정양식
5. 배부 및 접수처: 국제교류위원회 사무국
6. 신청접수기간: 1990. 10.1- 11.10
7. 수혜자의 의무
가. 인구비 수혜자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출국 30일전에 외국의 연구기간 또는 대학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초청장을 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본인이 해당기간중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됨)
나. 연구비 수혜자는 귀국후 2년간 의무봉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불이행시에는 지급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연구비의 수혜자는 귀국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여야 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연구결과보고서를 국제교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혜자는 연구년 혜택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8. 수혜내용
가. 수혜자는 왕복항공료와 월 $900씩 4개월분까지 계산,지급받을 수 있다.

국제교류위원장

## 1991년도 자매교 파견 유학생 선발

국제 교류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1991년도 자매교에서 수학할 유학생을 선발합니다.

1. 선발인원: 약간명
2. 유학대상국: 미국, 일본, 대만, 유럽
3. 시청자격: 1) 1991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자를 원칙으로 하되 졸업자중 수학능력이 탁월한자
   2) 3,4학년 대학성적이 평균3.5점이상인자
   3)위원회에서 정하는 어학능력 Test에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한 자 (해당유학학교가 요구하는 자격시험의 시험 성적을제출)
   4)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국내 거주자
4. 합격자대우: (다음사항중 하나만 해당됨)
   1) 등록금 면제 및 생활비 보조
   2) 등록금 면제 및 연구조교
   3) 등록금 면제 및 숙소제공
   4) 등록금 면제
   5) 학교장 추천에 의한 자비유학(자매교 교류조건에 따라 위 사항이 적용됨)
5. 신청제출서류:
   1) 신청서(본 위원회 소정양식)
   2) 명함판 사진 3매
   3) 졸업증명서 및대학원 재학증명서 각 1통
   4) 전 학년 성적증명서 1통
   5) 지도교수 추천서 1통
   6) 학과장, 학장 추천서 1통
   7) 수학계획서
6. 서류접수기간: 1990. 10:1-11.10
7. 합격자선발방법:
   서류전형후 어학능력 시험 및 면접시험

국제교류위원장

## 특수자료공개

본 중앙도서관에서는 금번 관계 기관의 특수자료(공산권 관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조치에 따라, 그동안 취급인가자에 국한하여 활용되던 자료를 일반 재학생들에게도 아래와 같이 널리 공개합니다.

1. 공개대상: 교수,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직원
2. 공개범위: 특수자료전반 (북한관계자료 포함)
   (단 본도서관의 미소장 자료를 요청할시는 통일원등과 협의 및 보완하여 공개할 예정임)
3. 공개일시: 1990,11,7 부터 매주 수,목요일(2주회)
   (단 도서관 사정 여하에 따라 평일에도 공개할 예정임)
4. 열람장소: 10:00-16:00(점심시간 제외)
6. 자료내역:

| 구분 | 보유수량 | 비고 |
|---|---|---|
| 일간지 | 7종 746종 | |
| 주간지 | 4종 282건 | |
| 월간지 | 33종 1,920건 | |
| 기 타 | 43종 1,112건 | 격월, 계간 등 |
| 소 계 | 87종 4,060건 | |
| 단행본 | 188건 | |
| 총 계 | 4,248건 | |

7. 열람 준수사항
   가. 대출 및 복사는 일체금함(취급인가자 제외)
   나. 필기구외에 소지품 지참을 금함
   다. 출입시 반드시 학생증이나 도서대출증 제시
   라. 자료열람시 반드시 열람대장에 기재
   마. 열람한 자료는 열람좌석에 그대로 놓아둘 것

중앙도서관

## 해외정보은행 (다이알로그)이용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한국데이타통신(주)과 데이타통신서비스(DNS) 계약을 맺고 다이알로그를 사용,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해외정보자료의 온라인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실시일: 1990년 6월10부터
2. 시스템 개요: 과학, 기술, 특허 등 전 학문분야의 약 6백여개의 DB로 구성된 세계최대의 정보은행으로 소장자료수는 약 1억7천만건에 이름.
3. 검색종류:
   (1) 자료조사: (…에 관한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2) 현황속보: 이용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를 선정, 주기적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 결과를 우송받음.
   (3) 검색자료 중 국내에 없는 자료의 원문이 필요하면 주문할 수 있음.
4. 이용방법:
   (1) 이용시간: 10:00~12:00, 14:00~16:30
   (2) 신청기간: 이용일 하루전까지 담당자와 직접상의 후 신청서 작성.
   (3) 연락처: 중앙도서관 참고열람실(교내 ☎ : 0075, 0076)
5. 사용료:
   (1) 데이타베이스 사용료: 검색종료 후 미화($)로 표시됨,
   (2) 통신료: 접속료와 전송료를 포함 분당 약800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열람실로 문의 바람.

중앙도서관

## 일본 민박 참가자 모집

경희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와 일어일문학과에서는 일본지구시민회와의 한일 민간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4회 일본민박 참가자를 경희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일본 규슈지방 사가현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치가라스계획은 매년 12월말부터 다음해 1월중순까지 14박15일간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12월27일부터 1월10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1. 기 간 : 1990년 12월27일~1991년 1월10일까지(14박15일)
2. 장 소 : 일본 사가현 일대
3. 인 원 : 총45명(남자의 경우 군 미필자 제외)
4. 접수기간 : 1990년 11월5일~11월9일까지
5. 접 수 처 : 일어일문학과 사무실(2호관 207호)
6. 문의 전화 : (0331) 280-222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람.

국제교류위·일어일문학과